“밥 사먹기 겁난다” 외식물가 고공행진

자장면·김밥·김치찌개·삼겹살 등 서민 음식값 급등
생활물가지수 13개월만에 최고…물가안정대책 시급

광주 운암동에 사는 김모(32)씨는 최근 퇴근길에 직장동료와 동네 한 고깃집을 찾았다가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 1인분에 1만3천원이던 삼겹살 가격이 1만4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식당인데 삼겹살값이 그새 1천원이나 올라 당황했다”며 “안그래도 얇은 지갑인데 음식값도 계속 오르니 외식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외식비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2% 이하 상승률로 저물가 흐름이지만 체감물가 수준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지난달 광주지역 음식값을 보면 자장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5천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천700원)보다 12.8%(600원) 올라 가격 인상률이 가장 컸다. 김밥은 2천260원으로 지난해보다 4.6%(100원)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김치찌개 백반(4.4%), 삼겹살(환산 후·3.7%), 칼국수(2.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식당 음식값을 비교해보면 광주에서 판매되는 삼계탕 평균 가격(1만4천400원)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으며, 가장 싼 충북(1만2천143원)과의 가격 차는 2천257원이나 됐다.

자장면도 광주(5천300원)가 가장 비쌌으며, 가장 저렴하게 판매된 경남(4천650원)과 650원의 가격 차가 났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도 치솟고 있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5.40으로 전년 동월대비 1.8% 상승하며 2% 이하의 저물가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생활물가지수는 106.25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나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2.7%)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도 0.4%p 높았다.

석유류(12.2% 상승)와 농산물(10.5% 상승) 등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외식물가를 끌어올린 원인이 됐다. 지난달 광주지역 외식비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3%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갈비탕 가격이 작년에 비해 10.7% 상승했으며 구내식당 식사비(4.5%), 김밥(6.4%), 치킨(4.9%), 맥주(외식 3.0%) 등도 1년 전보다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광주지역 외식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것은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인상, 임대료 상승 등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불경기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 입장에선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금호타이어, 중학생 진로체험 교육 ‘호평’

놀이형 프로그램 마련…안무가·연출가 등 직업체험

금호타이어(대표 김종호)가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중학생 대상으로 예술적 소질을 표현하는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최근 서울 중화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기초로 한 놀이형 프로그램 ‘나를 찾아줘’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맞춰 기획된 것으로 한 학기당 총 8회(16시간)에 걸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놀이와 움직임을 접목시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감정 표현 및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고 신체동작을 통한 자아표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팀별 안무 창작 시간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협동심을 기르고 직접 안무가가 돼 예술적 재능을 표현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꿈과 재능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선근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6년 교육 기부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7년부터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그림으로 마음읽기와 2016년부터 희망의 공부방 조성사업을 진행해 올해까지 총 14호점을 개설하는 등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최권범 기자

기아차, 3세대 신형 ‘쏘울’ 티저 이미지 공개

기아자동차는 미국 현지법인(KMA)을 통해 내년 초 국내 출시 예정인 3세대 신형 쏘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쏘울은 2013년 진일보한 감각의 2세대를 거치며 유니크한 디자인과 높은 활용성을 바탕으로 기아차 브랜드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계 자동차 모델들의 각축장인 미국 시장에서 매년 10만대 가량 판매되며,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기아차의 수출 효자 차종이자 북미 대표 모델로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교황 방한 시에는 ‘포프 모빌(Pope Moblie, 교황의 차량)’로 선정돼 전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3세대 쏘울은 이전 모델보다 한층 강인하고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최권범 기자

주식 거래 정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연합뉴스

남부대 수영장 ‘초고속 건물 특등급’ 취득

KAIT 정보통신인증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2019 세계수영대회 수영경기장 초고속 건물 특등급’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남부대학교 수영장 건축물이 업무용 건축물 본인증 등급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본인증 특등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취득했다.

남부대학교 수영장은 내년 7월15일부터 8월10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19년 세계수영 선수권대회’의 경기장으로 사용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건물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1999년 4월부터 마련돼 시행중이다.

한편 KAIT 정보통신인증센터는 지난 200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광주지역 등 전국 5개 센터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최환준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2018 에너지바우처를 알려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콜센터 1600-3190)
○ 신청방법/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18.10.17~’19.1.31)
○ 신청대상 : 소득기준(생계급여, 의료급여)과 가구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냇과
카페
식음료,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Cafe rt GALLERY BOOK & ARTS CENTER HOTEL
김냇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